

내년 시즌을 위한 어필 무대... 치열한 선발 경쟁



'두려움'을 지워야 기회를 잡는다.

KIA 타이거즈의 2021시즌은 '기회'로 이야기할 수 있다. 투-타의 잇박자와 이어진 부상상으로 일찍 순위 싸움에서 밀려났지만 그만큼 기회를 얻은 이들이 많다.

남은 경기 수가 줄어들수록 팀 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시즌을 위한 어필무대이기도 한 만큼 전방위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김태진의 부상 변수가 생긴 내야에서는 유민상이 집중력있는 타격을 선보이며 시선을 끌고 있고, 외야에서는 김호령과 이창진의 부상과 부진을 틈 타 박정우가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후보'들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선발진은 시즌 시작 전 구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윌리엄스 감독 구상대로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는 이는 맨땅과 임기영 두 명 뿐이다.

'에이스' 브룩스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에 팀을 떠났고, '특급 루키' 이외리는 발목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민우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면서 2

KIA 순위싸움 밀려났지만 막바지에 또다른 경쟁

유민상, 집중력 있는 타격 박정우, 새롭게 입지 넓혀 이민우, 선발 기회 잡을 듯

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외리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시즌에도 선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7일 이외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외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시간이 필요한 부상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복귀한다고 해도 다시 선발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일단은 집중 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 복귀 여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민우는 팀 상황에 맞춰 다시 선발로 기회를 얻



유민상



박정우



이민우

을 전망이다.

앞서 선발로 역할을 했던 김유신, 김현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 '더블헤더'까지 기다리면서 이민우는 10일 한화전에서 선발로 마운드에 오를 전망이다.

마음과 같지 않았던 2021시즌이지만 선발진에 속도도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윤중현이 확실한 선발로 자리매김을 했다.

윌리엄스 감독을 사로잡은 윤중현의 무기는 '두려움 없는 승부'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경기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게 윤중현의 강점이다. 원하는 데 집중해서 던진다. 낮게 제구를 해가면서 승부를 하고, 병살을 유도하는 등 상황을 이해하면서 경기를 한다.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 자신감이 다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려움이 없다. 그런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선발이 내려간 뒤에도 리드 상황이면, 뒤지고 있는 상황이면 신경쓰지 않고 잘 연결하면서 자신의 경기를 했다"며 "더블헤더 등이 있어서 기회를 얻었고, 기회 왔을 때 잘 잡으면서 좋은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윤중현에게 선발 역할을 맡긴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감 있는 승부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윤중현은 지난 6일 롯데 원정에서는 시즌 4승에 성공했다. 9피안타 3사사구를 기록했지만 5.2이닝 2실점으로 삼점을 최소화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아쉬운 시즌에도 '깜짝 스타'가 된 윤중현의 뒤를 이어 '기회의 시즌'을 만들 선수가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크리스 테일러 "기분 최고야"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LA다저스 좌익수 크리스 테일러(왼쪽)가 9회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투런 끝내기 홈런을 날린 뒤 베이스를 돌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인트루이스 가을무대 퇴장 와일드카드 다저스에 1-3 패배 김광현 2021 시즌 마감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단 경기만 치르고 가을 무대에서 퇴장했다.

원소 투수 김광현(33)과 세인트루이스의 2년 동행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세인트루이스는 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결정전 단판 승부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1-3으로 패했다.

김광현은 와일드카드결정전 로스터(26명)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등판 기회를 얻지 못했다.

김광현은 아쉬움 속에 2021시즌을 마감했다.

올해 정규시즌에서 김광현은 27경기에 등판해 7승 7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46을 올렸다. 선발로 등판한 21경기에서는 6승 7패 평균자책점 3.63, 구원 등판한 6경기에서는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80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안방에서 4강 굳히기

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이랜드와 K리그2 33라운드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4강 굳히기에 나선다. 전남은 9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K리그2 3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제 정규리그 종료까지 4경기만 남았다. 전남은 서울이랜드전 포함 3경기를 안방에서 갖는다.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인 4강에 자리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위 대전과는 승점 3점 차, 5위 부산은 5점 차 밖에 있다.

전남은 최근 10경기에서 1승 6무 3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9점을 더하는 데 그쳤다.

안방에서의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서울이랜드전에서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전남은 앞선 안양원정에서 0-1로 뒤진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페널티킥 골로 한숨을 돌렸다. 이 골로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전남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득점이다.

발로텔리의 발에 전남의 운명이 달려있다.

발로텔리는 올 시즌 슈팅 70회, 유효슈팅 22회, 박스 안 슈팅 47회를 기록하면서 공격 관련 데이터에서 팀 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슈팅은 K리그2 득점 1위 안병준(21골·111회)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발로텔리를 보유한 전남은 올 시즌 32골에 그치고 있다. 이 중 10골을 발로텔리가 책임졌다.

발로텔리는 '좋은 기억'을 살려 팀 승리의 전면에서 서겠다는 각오다.

발로텔리의 앞선 15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과 함께 전남의 3-0 승리를 이끌

었다.

전남의 승리 공식에도 발로텔리가 있다. 올 시즌 발로텔리가 득점에 성공한 7경기에서 전남은 5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전남이 발로텔리를 앞세워 4강 싸움에 일찍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남은 9일 서울이랜드전부터 10월 31일 안산과의 마지막 홈경기까지 '2021드래곤즈 아울렛'을 운영한다.

유니폼을 비롯한 트레이닝 의류와 굿즈 등 전 상품 30~6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렛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운영되며, 홈경기가 있는 날 광양축구전용구장 북문 게이트 왼쪽에 팝업이 마련된다.

온라인 아울렛은 12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된다. 단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온라인 아울렛을 운영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2년 신인 선수 계약 현황

순위	이름	포지션	출신교	계약금
1차지명	김도영	내야수	광주동성고	4억원
1R	최지민	투수	강릉고	1억5천만원
2R	윤도현	내야수	광주일고	1억원
3R	강병우	투수	배명고	8천만원
4R	김찬민	투수	전주고	7천만원
5R	이성주	포수	경기고	6천만원
6R	백도열	외야수	연세대	5천만원
7R	황동하	투수	인상고	4천만원
8R	한승연	외야수	전주고	3천만원
9R	신명승	포수	진흥고	3천만원
10R	손진규	투수	송원대	3천만원

<연봉: 3천만원>

김도영 계약금 4억원에 '사인' KIA, 신인 11명과 입단 계약

'제 2의 이종범'으로 꼽히는 광주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이 계약금 4억원에 KIA와 계약을 끝냈다.

KIA 타이거즈가 7일 2022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

타이거즈의 마지막 1차 지명 선수가 된 김도영은 계약금 4억원과 연봉 3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2차지명 1라운드 최지민은 (강릉고·투수) 1억 5000만원, 2라운드 윤도현(광주일고·내야수)은 1억원을 계약금으로 받는다.

이어 3라운드 강병우(배명고·투수) 8000만원, 4라운드 김찬민(전주고·투수) 700만원, 5라운드 이성주(경기고·포수) 6000만원, 6라운드 백도열(연세대·외야수) 5000만원, 7라운드 황동하(인상고·투수) 4000만원 등이다.

8·9·10라운드 지명을 받은 한승연(전주고·외야수), 신명승(진흥고·포수), 손진규(송원대·투수)는 각각 계약금 3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연봉은 모두 3000만원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페인, 이탈리아 꺾고 네이션스리그 결승 선착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37경기 무패 행진에 제동을 걸고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스페인인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타디오 산 시로에서 열린 2020-2021 UEFA 네이션스리그 준결승에서 이탈리아를 2-1로 꺾었다.

올해 7월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4강전에서 이탈리아에 탈미를 잡혔던 스페인은 이날 페란 토레스의 멀티골을 앞세워 설욕에 성공했다.

A매치에서 37경기 연속 무패로 역대 최장 기록을 보유한 이탈리아는 38경기 만에 패배를 맛보며 기록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탈리아가 홈에서 패한 건 1999년 9월 덴마크전(2-3 패) 이후 무려 22년 만이다.

이탈리아를 잡고 결승에 오른 스페인은 벨기에-프랑스 4강전 승자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 45분 같은 장소에서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